



# 90년 유가공업계를

## 돌아보며

장성종

(한국유가공협회 상무이사)

언제나 한해를 보내면서 지난날들을 뒤돌아 보면 다사다난한 한해였다고 일컬어지게 마련이지만 90년만큼 다사다난 하였든 해도 드물 것이다.

특히 우유의 수급문제를 생각해 볼때 상반기에는 사상초유로 분유재고가 2만톤을 넘어섰고 하반기에는 원유부족으로 학교급식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전하는등 극심한 수급불균형으로 허덕이던 한해였다고 할수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89년도의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가격의 과다한 상승과 이상구 신드롬 및 파스퇴르유업의 허위 지방 과장광고의 원인이 90년 1/4분기까지 이어져 내려온 때문이며 하반기의 원유부족 현상은 상반기 재고과잉에 따라 대용유업계와 배합사료업계에 전지분유 3618톤을 처분한것과 낙농가에 송아지용으로 분유 1226톤을 공급한것을 비롯하여 저능력우 도태를 권장한 것이 재고감축과 생산증가율을 둔화시킨 요인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제반 요인과 더불어 7~8월의 장마및 혹서기를 통한 유량감소와 지가상승및 목부구득난과 유제품의 수입자유화 문제는 낙농

가들의 낙농경영의욕을 떨어뜨려 하반기 원유생산량이 감소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편 소비에 있어서는 89년도 저조하였던 시유 소비가 증가하고 호상 요구르트의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전술한바와 같은 재고분유의 처분등으로 8월 중순 이후 원유부족 현상을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금번 원유부족시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은 우유수급조절기구의 부재로 우유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난 점을 들수있다.

다시말해서 원유의 부족이 10%라면 모든제품의 생산이 10% 감소되어야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 물량도 10%만 감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조정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유가 공업체별로 자의적으로 수급을 맞추어 나가게 되자 유업체간에도 부족의 정도가 달라 어떤 실수요자는 종전 구입량의 50%밖에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거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모순을 낳게 되었다.

특히 시중에 판매하는 우유의 경우 업체간 시장점유율 쟁탈을 위한 치열한 경쟁과 공급이 원활치 못할때의 배달원 이직을 우려하기 때문에

수요량을 채워줄수 밖에 없게 되므로서 상대적으로 가공품의 공급이 극심한 차질을 가져오게 되었고 식품업체들로부터의 크나큰 비난을 면치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수급조절기구를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급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던 수급조절기구 설립을 위한 낙농진흥법 개정안은 각 부처간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상정조차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다음으로 90년도는 유업체간의 과당경쟁의 폐해가 극명하게 나타난 해라고 할수 있다.

다시말해서 상반기에는 재고과잉으로 kg당 4300원하는 전지분유를 2500원내외에 덤핑판매 하므로서 거의 모든 유업체가 적자를 면치 못하였고 9월 이후의 원유부족시는 집유쟁탈전이 심화되어 원유대 이외에 유질개선비, 냉각비등의 온갖 명목으로 원유대를 추가지불하게 되므로서 적자를 면치못하게 되는 모순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낙농진흥법의 개정등으로 개선되어야 할것이라고 하지만 그 여간이라도 아쉬운것은 유가공업계의 단합된 힘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한것이라 하겠다.

또한 7월이후 갑자기 대두된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수입자유화 문제는 농축산업계에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사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수입자유화 문제는 86년도부터 추진되어 왔었으나 농산물분야의 드류의장이 협상안을 내놓으면서 부터 구체화 되었고 90년 12월 이내에 타결되어야 한다는 시한성 때문에 긴박감이 더하였다.

그러나 낙농 유업체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통하여 대책위원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축협중앙회, 낙농육우협회, 유가공협회, 서울우유가 참여한 낙농대책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계요로에 건의 하였던것은 특기할만한 일이라고 할수 있으며 이러한 단합된 힘에 의하여 정부는 유제품을 소위 비교역적 관심품목(NTC 품목)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부러셀에서 열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미국과 EEC간의 참여한 대립만이 중요한제로 되었을뿐 우리나라의 주장(수입자유화에서 NTC품목은 예외로 하자는 주장)은 논의의 대상도 되지 않았었다는데에 비애를 느끼지 않을수 없으며 앞으로의 협상결과에 우려를 하지 않을수 없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중에 하나는 코코아분유의 수입을 유가공협회와 식품업체(주로 제과업



체)가 협의하에 수입하게 된 것이다.

코코아분유는 코코아분말 10~20%에 분유 80~90%가 들어있는 제품으로서 86년도부터 수입자유화 되었고 수입증가율이 매년 배로 증가하여 89년도의 수입량은 3400톤에 이르렀고 이것이 국산분유 소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 하므로서 90년 3월 유가공협회에서는 상공부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구제신청을 제출하게 되었다. 무역위원회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호 협의를 종용하므로서 앞으로 코코아분유 수입시에는 유가공협회와 제과업체들이 협의를 한다는 조건으로 9월 29일 산업피해구제신청을 철회하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파스퇴르유업의 허위 과대 비방광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사건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다.

87년 9월에 시판을 개시한 파스퇴르유업은 판매초기부터 IDF가 인정하는 진짜우유 국내 최초탄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존우유는 단백질이 열에 의하여 변성되어 맹물과 같이 되었고 칼슘은 소화될수없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등 엄청난 허위 비방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트렸고 우유에 대한 불신감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따라 유가공협회에서는 88년 1월 공정거래실에 허위 비방 과장광고로 신고하였고 공정거래실은 동년 7월에 파스퇴르유

업에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파스퇴르유업은 공정거래실의 사과광고 명령을 무시하고 동년 9월에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바 있으나 고등법원에서도 89년 11월 패소하였다. 파스퇴르유업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90년 10월 10일 장장 3년여에 걸친 시비의 종지부를 찍고 파스퇴르유업의 패소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파스퇴르유업측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만광고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90년도를 보내면서 못내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이상으로 90년도의 주요사건들을 뒤돌아 보았다.

그러나 코코아분유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느것 하나 제대로 마무리 된것도 없이 90년도를 넘어 가게 되어 91년도 순탄치 않은 한해가 될것을 예고하는것 같다.

이제 91년도에 유가공업체가 해야할 것은 먼저 내실을 기하여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서로 단결하는 것만이 90년도의 미해결사건을 해결하고 앞으로 닥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상호신뢰의 바탕은 낙농업계와 정부로 확대되어 나갈때 우리나라의 낙농 유가공업은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